



새가 난다. 봄이다. 먹이를 물고 어미 새가 난다. 숲마다 나무마다 소리가 울린다. 이쪽 숲에는 작가 은유가 있다. 삶의 양분이 될 이야기로 등지를 짓는다. 알아야 하나 알지 못하고 지나간 것들을 물어와 우리에게 준다. 『글쓰기의 최전선』, 『싸울수록 투명해진다』, 『쓰기의 말들』, 『다가오는 말들』, 『알지 못하는 아이의 죽음』 그 외 작가 은유가 읽고 쓴 많은 것들로 숲이 푸르다. 봄이다. 새들이 날아 오른다.

글 이재영 사진 최충식

은유라는 작은 새 글로 세상을 전하라 하네

한겨레 신문에 셀프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전달자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글을 쓴다는 건 ‘기록’한다는 의미가 강한데요. 기록자와 전달자의 차이가 뭘까요?

‘전달’은 ‘기록’ 보다 공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물론 기록도 공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모든 글쓰기는 공적 글쓰기라고 생각해요. 오롯한 개인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일기를 써도 독자를 상정하고 쓰게 되어 있어요. 다른 점이라면 기록자는 서사를 완성하는 데 그치지만 전달자는 타인에게 서사를 건네서 기록을 세상과 탄탄하게 연결시켜요. 전달자가 좀 더 책임감이 있죠.

그 책임감 때문에 글을 쓰고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시는 건가요?

공적인 글을 쓸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기 글을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어려운 일 이죠. 깊게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내 안에 녹이고, 그것을 글로 표현할 땐 핵심을 전달해야 해요.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은 지인들에게 먼저 보여주고 피드백을 받죠.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느냐, 납득이 가느냐 묻고 고칠 게 있으면 수정해요. 독자와 나의 정보량 자체가 다른 경우에는 글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워질 수 있어요. 저 하나만 만족하는 글은 힘이 없어요.

작가 은유



66

누구나 자기 삶의 기록자가 되어야
 해요 글을 쓰면 소중한 걸 기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직면을 하지 않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글이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죠
 99

애써 쓴 글에 대해 피드백 받으면 기분이 상할 법도 한데요.

처음 글을 쓸 때부터 주로 전달자의 포지션에 있었어요. 공익을 위해 세상에 보다 나은 가치를 내놓는다는 사명감이요.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드백을 받는 걸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더 좋은 글이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요.

알고 있었지만 글을 쓴다는 것, 특히 전달자의 입장에서 세상에 글을 내놓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네요.

저도 강의에서 글쓰기는 경험이 쌓이는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곤 해요. 글은 지난 번에 썼던 걸 또 쓸 수 없어요. 매번 새로운 관점, 주제, 이야깃거리를 전달해야 하죠. 모든 글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요리나 운전처럼 손에 익고 몸에 배는 기술이 아닌 거죠. 항상 새로운 재료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일이에요. 글쓰기 공부를 하는 학인



들에게 글쓰기가 기술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해요. 항상 고민이에요. 이렇게 오래했는데 왜 쉬워지지 않는 걸까!

좀처럼 쉬워지지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글을 써야 하는, 기록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글은 세상을 좀 더 나아지게 하는 방편이 될 수 있어요. 세상뿐 아니라 나 자신도요. 누구나 자기 삶의 기록자가 되어야 해요. 글을 쓰면 소중한 걸 기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기 직면을 하지 않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글이 나를 제대로 보게 해주죠. 내 삶을 잘 들여다봐야 타인의 삶도 보여요. 자신과 혹은 타인과 온전하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기록이 세상에 새로운 가치를 내놓는다는 게 가능한가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기록할 때 많이 고민하죠. 어디까지 써야 하는 건가, 과연 이게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 자신의 얘기를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안 하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솔직하게 쓴다고 좋은 글인 것도 아니고 안 쓴다고 나쁜 글도 아니에요. 이 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없죠. 중요한 건 내 삶을 소재로 얘기했을 때 그 너머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육아가 고단해 나를 찾고 싶다는 주제로 기록을 한다면 감정을 해소하는 단순 배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죠. 그걸 어떻게 해석했는지, 의미화해내야 해요. 가정폭력에 시달렸거나, 성폭력 피해자의 이야기는 고통스러워요. 지극히 사적이고 내밀한 이야기죠. 하지만 글을 통해 폭력이 근절되고 다른 고통 받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다면 가치가 있잖아요.

기록, 글을 써야 할 때 많이 생각하는 게 시간이에요. 바쁜데 언제 기록까지 하나 이런 고민이 생기잖아요.

저는 일상이 어수선해요. 엄마 역할도 해야 하고, 글쓰기 수업도 있고, 마감해야 할 원고들과 읽어야 할 책들과, 만나야 할 사람들. 이게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 글을 쓸 때도 참 번다했어요. 회사 다니고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거기서 출발했죠. 핑계는 사실 늘 생겨요. 일단 써야 해요. 기록하고 싶다는 열망만으로 글이 나오지 않아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게 구상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고 해요. 직장 다니면서 기록하는 거, 아이 키우면서 기록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럴 땐 무모하지 않을 정도의 계획을 세우세요. 예를 들면 1년 동안 2주에 한 편씩 26편의 에세이를 쓰겠다고 구체화하는 거죠. 스스로 마감을 정하면 몰입하게 돼요. 그럴 때 있는 줄도 몰랐던 생각이 튀어나와요. 그 쾌감은 다음 글을 쓰게 하는 동력이 되고 기록이 이어지는 거죠.

쓰기 위해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읽은 것들을 잘 갈무리해서 기록의 자료로 쓰는 작가님만의 비법이 있는지?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서 여러 책에서 알려준 방법으로 효과를 얻진 못했어요. 읽으면서



66

좋은 책을 읽으면
그걸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저장방법이더라고요.
무작정
기록해놓는다고
도움이 되긴
어려워요.

99

플래그도 붙이고 밑줄도 긋고 필사도 하는데 잘 정리하지 않으면 뒤에 감동 받았는지 금방 잊게 돼요. 제가 쓰는 방법은 우선 문제의식을 갖고, 읽은 뒤 기록하는 거예요. 가령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고민이라면 그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하며 읽게 돼요. 어느 책을 읽어도 나를 위한 처방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주제와 관련된 문장에 밑줄을 긋죠. 그렇게 다 읽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예요. 좋은 책을 읽으면 그걸 가지고 글을 써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한 저장방법이더라고요. 무작정 기록해 놓는다고 도움이 되긴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언어가 얻어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 과정을 거치면 주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건 이런 거 같아. 나는 나이 든다는 게 이래서 좋아. 사람들은 불편하다고 하는데 뭐가 좋은지 자기 나름의 설명을 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에 타인의 경험까지 합해져서 내 언어로 살아 나요. 자신의 언어를 갖게 되면 어느새 또 다른 기록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기록이, 글쓰기가 과연 세상을 바꾸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오래도록 가슴에 새긴 문장이 있어요. 이오덕 선생님 말씀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이 글을 써야 세상이 바뀐다.” 써야 해요. 쓰셔야 합니다. 세상의 대부분인 약자들이 글을 써야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가 드러나요. 그동안 글쓰기는 소수에게 부여된 권력이었어요. 힘들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배제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았죠. 그래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꾸중이나 듣고 더 용기를 내야 한다는 잔소리를 들은 거예요. 당사자들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진 않죠. 저도 일하는 엄마로 한국 사회 여성으로 사는 고통에 대해 많이 썼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힘든 요인이 제거되진 않지만 힘들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인식하게 됐죠. 내가 욕심내야 할 것과 포기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과 멀리해야 할 것을 사리분별 하게 됐어요. 직장생활이 왜 힘들까? 글을 쓰다 보니 월급이 나오는 건 좋은데 따로 하고 싶은 일이 있네. 선명해져요. 원하는 걸 뚜렷하게 알면 상황을 바꿀 용기가 생기죠. 그렇게 모두 조금씩 달라지면 세상도 가만히 있진 않겠지요.

“생의 모든 계기가 그렇듯이 사실 글을 쓴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전부 달라진다.” 『글쓰기의 최전선』에 실린 은유 작가의 글이다. 기록을 주저하고 있다면 이 두 문장만 기억하자. 그나저나 3월이 됐다고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봄이 되니 전부 다르다. 공기도 바람도 새소리도. 🌸

